

2018

제3호

발간년월 2018년 10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하동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박광서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 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신수용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박예나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이정민 혁신성장연구실 위촉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이지원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실업자 100만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달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편에 속한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업의 고용증가율이 29.7%로 전체 산업의 고용증가율(27.5%)보다 높게 전망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제물류 분야는 일자리 창출 측면뿐만 아니라 1조 달러 무역대국인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규모가 74.6%인 우리나라로서는 물류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지에서 한국계 국제물류인력이 부족해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의 한국계 국제물류인력에 대한 수요가 분석 대상 69개 국가에서 약 3,90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중국, 베트남 등 우선순위 상위 20개 국가만 해도 약 3,300명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 10곳, 4년제 대학 20곳, 대학원 17곳에서 연간 약 1,300명의 물류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이 부족하고, 특히 졸업 후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물류인력 양성사업을

---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할 국제물류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인력의 양성과 함께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외에 진출할 국제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해외취업 프로그램(일명 K-MOVE 사업)을 활용하여 (가칭)국제물류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K-MOVE 사업은 해외취업이라는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고, 연수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사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거의 없다. 연수기관으로는 국제물류 관련 대학 및 대학원이 바람직하며, 국제물류 관련 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국내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국제물류인력 수요가 큰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이 주요 대상 국가이다. 현장에서는 물류기획, 물류영업, 물류운영, 물류정보시스템과 같은 직무능력과 영어, 현지어 등 어학능력이 필요하다. 성실성, 책임감, 글로벌 매너,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할 역량이다. 따라서 직무교육, 어학교육, 소양교육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물류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해외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취업률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이수 후 3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적 효과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시정해야 한다. 인력의 수요처인 산업계가 교육계획 수립, 강사진 구성, 현장실습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성된 인력을 KOTRA 해외무역관에 파견해 여러 기업에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가 102만 명, 실업률은 3.7%를 기록하는 등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
  - 특히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2만 6,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의 41.6%를 차지하고, 청년 실업률 역시 9.8%로 전체 실업률(3.7%) 대비 2.6배를 기록함
-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비롯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함
  - 해양수산부 역시 2022년까지 약 12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2017.8)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해양수산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중임

### ■ 해양수산 분야 역시 취업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잠재력은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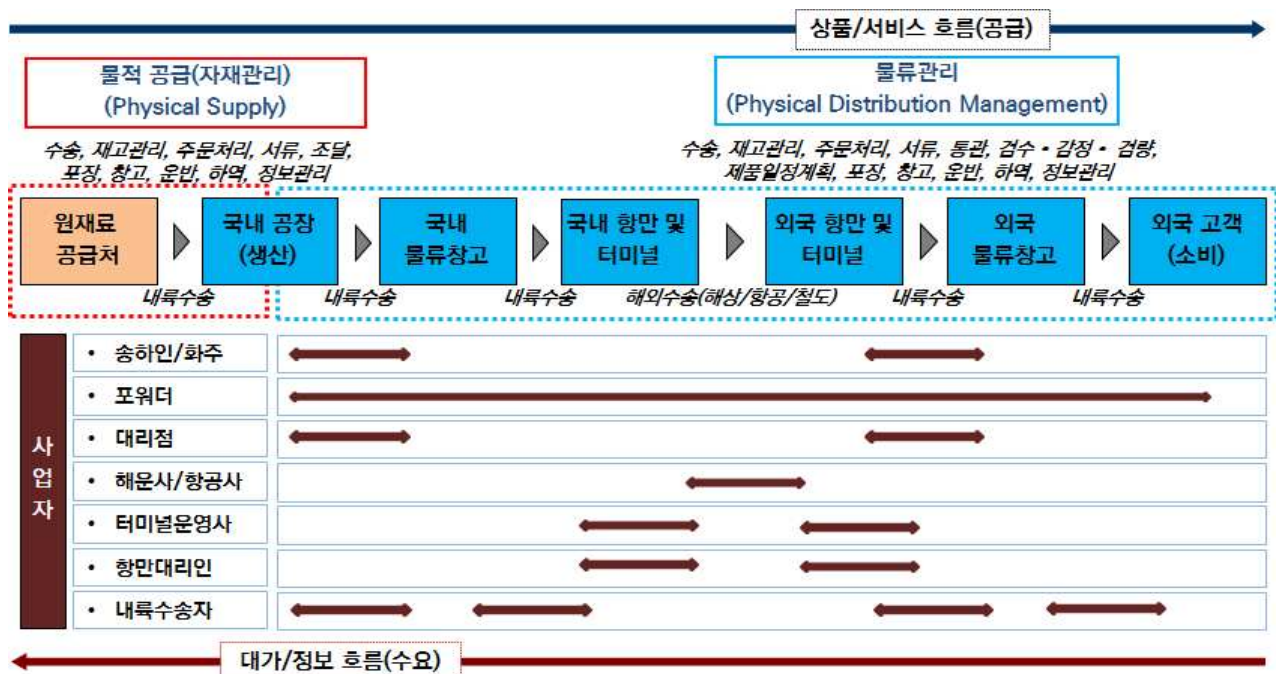
-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양수산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됨
  - 2016년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이 67.7%인 데 비해 해양수산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59.9%로 7.8%포인트 낮은 수준임
- 그러나 해양자원 개발 확대,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OECD(2016)는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이 29.7%로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율(27.5%)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함

## 국제물류 분야는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

### ■ 국제물류<sup>1)</sup>는 크게 물적 공급(자재관리)과 물류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급사슬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활동

- 물적 공급은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생산자에게 원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이며, 물류관리는 생산자로부터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을 포함함
- 공급사슬에 따라 화주 또는 송하인, 국제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또는 프레이트 포워더), 대리점, 해운선사 및 항공사와 같은 수송업자, 항만 및 터미널 사업자, 기차 및 트럭을 이용하는 내륙 수송업자 등이 활동함
- 그중 포워더의 활동 범위는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으며, 국제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해외에 상주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물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포워더에 해당함

그림 1. 국제물류 공급사슬과 사업자 현황



자료: CBS Maritime, Value creation in the maritime chain of transportation, 2016.12, 각종 문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국제물류는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상품의 이동과 취급에 관한 모든 활동을 2개국 이상에서 수행하는 것, 즉 2개국 이상에 걸쳐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국제물류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인력 부족 현상 심화

- 무역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역규모 확대가 불가피함
  - 2017년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규모(1조 522억 달러)가 국내총생산(GDP)(1조 4,112억 달러)<sup>2)</sup>의 74.6%를 차지함
- 무역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역시 꾸준히 증가함
  - 해외 신규투자 법인 수가 2017년 기준으로 3,411개로 2010년(3,066개)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해외투자액은 같은 기간 71.5% 증가함
- 물류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물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나 기업이 요구하는 물류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심화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체 또는 무역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 시 한국계 국제물류인력이 부족해 전문적인 물류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신수용 외(2017)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89%가 한국계 국제물류인력(포워더)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016년 기준으로 국내 포워더 관련업체<sup>3)</sup>는 1만 1,113개사, 종사자는 5만 4,201명으로 추정됨

표 1. 포워더 관련 기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기업체수(개)	9,928	10,376	10,414	10,359	10,422	11,113	2.3
종사자수(명)	41,802	42,010	47,655	46,814	47,595	54,201	5.3

자료: 통계청 운수업조사

2) 세계은행 (검색일: 2018. 6. 1.)

3) 통계청 운수업조사에서 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포함

## 국내 국제물류인력은 정규교육과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

### ■ (정규교육) 2017년 기준으로 총 53(대학원 중복 허용)개 교육기관에서 67개의 국제물류 관련 전공을 운영하며, 연간 약 1,300명 배출

- 전문대학의 경우 10개의 학교에서 10개의 전공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공은 유통물류학과와 물류유통경영과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함
- 대학교의 경우 총 20개 대학에서 26개 전공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국제물류라는 명칭으로 전공이 설치된 곳은 대전대, 동명대, 동서대, 서남대, 신라대, 중앙대, 평택대 등 7개 대학임
- 석사과정은 17개 대학에서 24개 전공, 박사과정은 6개 학교에서 6개의 전공을 설치하였음

표 2. 국제물류 관련 대학(원) 교육기관 및 전공 현황(2017년 기준)

학제	학교(전공)
전문대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보건대(항만물류과), 김포대(물류유통경영과), 대전과학기술대(물류유통경영과), 명지전문대(물류유통경영과), 부산경상대(유통물류과), 서해대(유통물류과), 유한대(유통물류과), 인천재능대(유통물류과), 장안대(물류경영과), 창원문성대(유통물류과)</li> </ul>
대학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야대(항만물류학부), 경성대(경제금융물류학부), 광주대(국제물류무역학과, 물류유통경영학과), 군산대(물류학과), 대전대(국제물류학과), 동명대(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해운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항만물류학부), 동서대(국제물류학전공), 서경대(물류유통경영학과), 서남대(국제물류학과), 성결대(유통물류학부), 세한대(정보물류학과), 순천대(물류비즈니스학과, 물류학과), 신라대(국제물류학전공), 영산대(해운항만물류학과), 용인대(물류통계정보학과), 인하대(아태물류학부), 전주대(물류무역학과), 중앙대(국제물류학과-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 평택대(국제물류학과, 무역물류학과), 한국해양대(물류시스템공학과)</li> </ul>
석사과정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대(물류학과), 대전대(물류유통학과), 동의대(유통물류학전공), 명지대(유통물류학과, 물류학과), 부경대(국제통상물류학과), 부산대(국제물류 및 항만관리 전공), 서경대(물류학과), 성결대(유통물류학과), 순천대(물류학전공, 물류학과), 우석대(유통물류학과), 인천대(물류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인하대(글로벌물류MBA과정, 물류MBA과정, 학술과정), 중앙대(글로벌물류학과, 무역물류학과), 중원대(국제물류통상학과), 평택대(물류학과), 한경대(글로벌물류학과), 한국해양대(물류시스템학과, 해운항만물류학과)</li> </ul>
박사과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대(학과간협동과정 항만·물류시스템학과), 부경대(국제통상물류학과), 부산대(국제물류 및 항만관리전공), 순천대(물류학전공), 인천대(학술과정), 한국해양대(물류시스템학과)</li> </ul>

- 졸업생 기준으로 전문대학은 290명, 대학은 781명, 석사 206명, 박사 23명 등 총 1,300명임

표 3. 국제물류 관련 대학(원) 인력양성 규모(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합계
			석사	박사	
학교 수	10	20	17		47
학과/전공 수	10	26	24	6	66
입학생 수	293	770	226	40	1,329
졸업생 수	290	781	206	23	1,3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및 각 학교 내부자료

- 국제물류인력 양성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존재함
  - ① 4차 산업혁명 등 물류 환경 변화를 대비한 교육내용 미흡, ② 산업계와 연계한 실무교육 부족, ③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④ 영어 외 다양한 현지외국어 수업 부족, ⑤ 졸업생의 취업정보 관리 부재

## ■ (전문인력 양성사업) 3개 부처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해외진출 국제물류 인력 양성에는 제한적인 상황

### 1)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 신규 물류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 재교육을 지원하고, 국제 물류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됨
-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해 추진되고 있으며, 해운항만물류 분야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을 통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함



표 4. 제3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과정	내용	양성기관	사업비 (원)
고급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항만물류분야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li> <li>- 국제물류시장의 동향분석 및 예측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풀타임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li> <li>- 전공 및 전문가 특강 등 교육부문과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부문으로 구성</li> </ul>	인천대, 중앙대	2억
장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항만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석·박사 과정</li> <li>-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비슷하게 교육과 연구 시행</li> </ul>	인천대, 중앙대, 전남/순천대, 한국해양대	9억
단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의 이론 재교육 중심의 과정</li> <li>- 해운항만분야 신규 및 현업종사자 대상</li> <li>-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이론 및 실무기법 위주의 교육</li> </ul>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동명대	1억
국제 교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선진 대학과의 인적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li> <li>- 외국어 및 IT교육, 해외석학 초청, 해외연수 및 견학, 해외학술대회 참가 등 해외 프로그램 구성</li> </ul>	부산대, 동서대, 평택대	2.5억
산학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li> <li>- 해운항만물류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이론교육 및 실무 적응을 위한 인턴십을 병행</li> <li>-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진로 및 취업상담, 진로교육 등 취업과 연계된 교육 시행</li> </ul>	한국해양대, 평택대, 전남대, 동서대	3.4억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전문인력들의 지속적 관리로 취업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li> </ul>	네트워크 사업단 (중앙대, 한국해양대, 인천대, 동명대, 한국교통대, 성결대, EC21)	1.4억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국토교통부(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

-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물류특화 대학(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과 물류특화 고교 및 전문대를 지원하는 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구분함



- 특히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은 물류와 유통, IT, 친환경 등 글로벌 융·복합에 따른 교과목 개편, 해외 우수물류기업 인턴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경영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함

표 5.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 추진 현황

사업	사업 내용	양성기관	예산(원)
제 1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지원</li> <li>• 물류 전문성 함양에 사업목표를 두고 시행</li> </ul>	인하대	100억
제 2차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특성화 인력양성사업</li> <li>• 물류 전문성 함양에 사업목표를 두고 시행</li> </ul>	인천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경대	51억
제 3차 (‘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물류산업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li> </ul>	인하대, 군산대, 대전대, 순천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40억

자료: 국토교통부 (검색일: 2018. 6. 15.)

### 3) 고용노동부(국제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계획됨
- 국제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상기에서 설명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교과목은 크게 기본역량(32시간), 수출입관리(40시간), 해상운송관리(56시간), 항공운송관리(56시간), 복합운송관리(56시간), 멘토링 및 기타(80시간)로 구분된다. 기본역량은 취업역량진단, 예절교육, 팀워크 및 리더십으로 편성됨

### 4) 고용노동부(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K-MOVE))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17년 기준으로 총 148개 과정이 운영되었는데, 국제물류 관련 연수과정은 12개임
  - 9개 과정은 장기, 3개 과정은 단기였으며, 대부분 대학에서 연수가 이루어짐
  - 취업 진출 국가는 미국(7개), 싱가포르(2개), 프랑스와 일본, 베트남이 각각 1개임

표 6. 국제물류 관련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현황(2017년 기준)

NO	유형	연수기관명	연수과정명	승인 인원(명)
1	장기	동명대	미국 물류유통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10
2	장기	동서대	미국 무역·물류 프런티어 양성과정	25
3	장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무역, 유통, 물류, 포워딩 취업연수과정	20
4	장기	인하대	미국 취업 국제통합 스마트 유통물류산업 실무자과정	20
5	단기	(주)해외교육진흥원	싱가포르 사무행정직(국제물류&무역) 취업연수과정 1기	15
6	단기	(주)해외교육진흥원	싱가포르 사무행정직(국제물류&무역) 취업연수과정 2기	15
7	장기	충북대	프랑스 물류/유통관리 전문가과정	10
8	장기	가톨릭관동대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 관리자 연수과정	20
9	장기	성결대	일본 머큐리 물류전문가 과정	20
10	장기	경남대	미국 수출입통관물류 전문인력 양성 연수과정	10
11	장기	부산대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물류 전문가 양성과정	20
12	장기	영산대	베트남 비즈니스, 무역, 물류인력 양성과정	10

자료: 월드잡(검색일: 2018. 6. 20.)을 참고하여 작성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극복해야 할 한계가 존재함

-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미흡, ② 양성 대상 물류인력의 범위 협소, ③ 대학에 편중된 사업 추진, ④ 교육과정과 취업연계 사업의 분리, ⑤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재, ⑥ 사업 관리 체계 미흡

## 해외진출 국제물류인력의 수요 분석 결과

### ■ (양적수요) 해외진출기업의 수요 조사결과와 국가별 해외진출 기업의 수, 우선순위 지표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20개국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3,308명 추정

- 상위 20개 국가의 국제물류인력 수요는 총 3,308명으로 분석 대상 69개 국가의 수요(3,903명) 대비 84.8%를 차지함
- 국가별로는 중국 1,205명, 베트남 1,103명, 인도네시아 240명으로 이들 3개국만 하더라도 2,548명 (77.0%)임

표 7. 우선순위 상위 20개국의 국제물류인력 수요

(단위: 명)

순위	국가	수요	순위	국가	수요	순위	국가	수요
1	미국	134	8	인도	118	15	독일	7
2	베트남	1,103	9	일본	64	16	몽골	3
3	중국	1,205	10	라오스	1	17	스위스	2
4	룩셈부르크	1	11	말레이시아	36	18	노르웨이	2
5	싱가포르	13	12	터키	28	19	에티오피아	3
6	캄보디아	64	13	필리핀	81	20	태국	141
7	미얀마	63	14	인도네시아	240	3,308		

### ■ (질적수요) 물류기획, 물류영업, 물류운영, 물류정보시스템이 공통 직무역량에 해당되며 외국어 및 글로벌 매너 등 기본적 소양도 중요

- 해외 현장에서는 물류기획, 물류영업, 물류운영, 물류정보시스템과 같은 직무능력이 중요함

표 8. 국제물류인력 공통 직무역량 요인

구분	공통 직무역량 요인
물류기획	• 물류거점 수요예측, 거점 수 결정, 입지 선정, 거점별 규모 및 형태 결정, 물류환경 분석, 물류서비스 목표설정, 공급망 계획수립
물류영업	• 거래처물류영업, 물류고객관계관리, 물류서비스 성과관리
물류운영	• 운송절차 관리, 운송방법 결정, 운송운임 산정, 물류비 관리, 물류 표준화 실행, 물류 프로세스 개선, 물류법규보안 관리, 입출고 계획 수립, 재고관리, 하역관리
물류정보 시스템	• 운송관리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 포워더 관리시스템, 특송관리 시스템, 주문처리 시스템 활용

자료: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업종별, 경력별로 필요한 교육수요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교육수요도 발견함

표 9. 국제물류인력의 업종별 교육수요 적정성 및 우선순위

우선 순위	업종					경력	
	운송업	제조업	유통업	주산업	보관업	10년 미만	10년 이상
1	물류효율 성과관리	운송효율 성과관리	유통물류 관리	물류정보 시스템활용	보관업무	물류거점 운영계획	물류거점 운영계획
2	운송관리	물류운영 계획수립	물류정보 시스템활용	물류거점 운영계획	물류거점 운영계획	운송관리	운송관리
3	물류거점 운영계획	물류거점 운영계획	물류거점 운영계획	물류효율 성과관리	물류정보 시스템활용	물류효율 성과관리	보관하역 관리
4	보관하역 관리	물류정보 시스템활용	물류고객 관리	운송관리	물류효율 성과관리	물류정보 시스템 활용	물류효율 성과관리
5	물류고객 관리	물류고객 관리	물류운영 계획수립	물류운영 계획수립	물류고객 관리	보관하역 관리	물류정보 시스템 활용
6	물류정보 시스템활용	보관하역 관리	유통채널 계획	보관하역 관리		물류고객 관리	물류고객 관리
7						물류운영 계획수립	

자료: 박세영 외(2018)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영어, 현지어 등 어학능력, 성실성, 책임감, 글로벌 매너,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할 역량에 해당됨

## 해외에 진출시킬 청년 국제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기초한 인력양성 기반 구축 필요

### ■ 해외진출 국제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

- ① 정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방안 : 졸업생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 ②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 현재 2014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양성은 제4차 계획부터 적용함
- ③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 사업취지와 부합하고, 연수기관에 선정만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출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

### ■ 정규교육과정과 해양수산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존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

- (정규교육과정 개선방안)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표준화된 국제물류 커리큘럼 개발, 현장 실습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해외대학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취업 현황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 중심형 사업으로 전환, 물류의 범위와 교육대상자 자격 확대, 기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 동일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표준화, 사업 관리체계 개선, 평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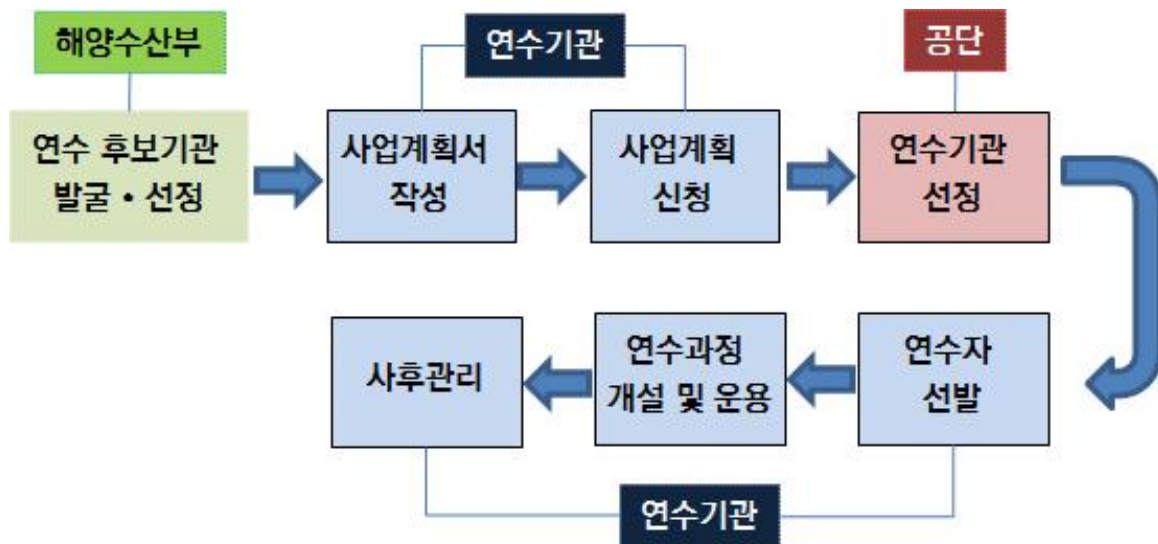
표 10. 정규교육과정 및 해양수산부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선방안

정규교육과정	해양수산부 전문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제공</li> <li>• 표준화된 국제물류 커리큘럼 개발</li> <li>• 현장실습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li> <li>• 해외대학과 협력 프로그램 확대</li> <li>• 취업 현황 관리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중심형 사업으로 전환</li> <li>• 물류의 범위와 교육대상자 자격 확대</li> <li>• 기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li> <li>• 동일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표준화</li> <li>• 사업 관리체계 개선</li> <li>• 평가 및 사후 관리 강화</li> </ul>

## ■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칭)국제물류아카데미를 개설할 것을 권고

- 국제물류 관련 대학 및 대학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국제물류와 관련된 협회와 각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공공기관도 가능함

그림 2. 국제물류아카데미 개설 및 운용 업무처리 절차



- 기존 국제물류 관련 우수 연구과정을 참고하여 연수계획 수립이 필요함
  - 3개월~6개월 과정으로 과정별 20~50명씩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1. 국제물류아카데미 교육내용 및 규모 예시

구분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인원
직무	• 물류이론, 국제물류, 컴퓨터 활용,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 등	3개월 ~6개월	20명 ~50명
어학	• 비즈니스 영어, 영어회화, 무역영어, 취업영어, 현지언어 등		
기타	• 사회문화, 안전, 비자취득, 멘토링 특강, 현장견학 등		

- 전문대학 10곳, 4년제 대학 20곳, 대학원 17곳에 국제물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서 연간 50명씩만 양성하더라도 1년 만에 2,350명 양성이 가능함
  - 그밖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각 지역 항만공사, 국제물류 관련 협회도 참여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외진출 국제물류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물류인력 양성과 함께 해외 취업연계방안의 동시 실시 필요

### ■ 취업률 중심의 성과평가 강화 및 사후 취업경로 추적 강화

- 취업률을 인력양성사업의 성과관리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취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함
  - 단순 취업률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맞게 실제 국제물류 분야에 취업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함
  -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교육기관의 지속 여부, 지원 금액 차등배분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교육 이수 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장기적 효과 및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해야 함

### ■ 산업계 협력체계 구축 강화

- 교육과정 수립 시 기업의 수요조사 반영 여부, 인턴십 추진계획, 강사진 구성계획, 취업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평가에 반영해야 함
-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물류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국제물류인력 취업정보 제공 강화

-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주요 취업사이트와 자동연계를 통해 국제물류 분야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KOTRA를 통한 해외 파견사업 검토

- 양성된 인력들이 개별 기업에 취업하기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에 물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를 국제물류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KOTRA 무역관 126개소×1개소당 5명 파견=630명 파견이 가능함



## KMI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URL: <https://www.kmi.re.kr/>